



전국 대의원 Work-Shop을 다녀와서...



글 | 박 차 수 (No. 74876)
부산지회 대의원
동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보은의 달인 5월이 지나가고 싱그런 6월이 펼쳐지는 망종, 오늘 전국 대의원 Work-Shop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속리산으로 떠난다. 복잡한 도시를 조금 벗어나니 옛그저 연초록이던 산과 들만이 초록으로 변해 버렸고 산줄기에서 내려오는 스펙트럼처럼 반사된 나뭇잎과 병정처럼 심어진 모듈은 파아란 뿌리를 내리고 산자락을 일군 봉발에는 콩잎들이 자라며 농촌의 풍경이 창문을 통해 넘어온다. 쉬엄쉬엄 쉬어 가면서 도착한 곳이 속리산 유스타운이다. 넓은 마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과 자동차들이 가득하였으며 입구에 마중을 나온 임·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방명록을 등록하였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정원 벤치에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정원의 벤치에 걸터앉아 사면을 둘러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숙소는 평온한 휴양지의 운치를 자아낸다. 오후 2시경 대의원 Work-Shop이 시작되었다. 임·직원들의 간단한 소개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간단하지만 뜻

있는 화두였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life-style에 필요한 technical이 짧아지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기술을 개발하여야하며 앞으로 에너지관련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원인 녹색성장에도 많은 기술 제공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어 한전 KDN 유남철 부장의 '녹색성장과 smart grid'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지구는 뜨겁고, 평평하고, 인구는 붐비며 따라서 세계는 빠른 변화를 꾀하고 있고 석유자원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제는 green이다. green은 money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지하수를 냉각화하는 기술, solar cell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기술, CO₂와 에너지 절감기술 등에서도 digital에서 smart grid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양에서 질로 공급지에서 수요자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변

화의 아젠다를 세워야 한다. KDN에서는 전력 web-service를 구축하기로 하고 양방향 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전원개발 및 수요와 공급자간의 실시간 전력 가격변동을 smart grid로 추진코자 정부와의 R&D사업을 확보하였으며 smart grid 실증 실험을 할 장소로 제주도가 선정되었다는 소개도 있었다.

특강이 끝나고 협회 발전방안 공모에 대의원들께서 제안 해 주신 소중한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협회 중앙회와 전국지회가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공익단체로서의 역할과 국가사회에 공헌하면 좋겠다는 제안과 smart grid(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에 협회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제안 등이 있었다. 첫날 저녁만찬에는 친교의 시간으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과 식사를 같이하면서 정담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 창밖을 보니 현충일 태극기가 걸렸다. 오늘은 1950. 6. 25(일) 새벽04시 북한군의 침공에 맞서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영웅들을 위로하는 현충일이라 감사함과 고마움에 마음이 숙연해 진다. 아침식사를 끝내고 일행들과 함께 속리산 문장대로 극기훈련을 갔다. 법주사를 지나 오르니 저수지 상류에 맑은 물속에 일급수 물고기가 가득하다. 오르는 길에는 아름다운 적송과 졸참나무들이 햇빛을 가려주고 계곡 따라 흐르는 물과 새소리는 한줄기의 교향곡 같은 화음을 자아낸다. 가파른 계곡을 오르니 급수 등에서 땀이 배여오고 얼굴에도 연신 땀이 난다. 다리와 허리도 아프고 허파도 바쁘게 뛰었다. 이것이 극기훈련이다. 가장 짧은시간 문장대에 올랐다. 문장대(文藏臺: 글에 문혀있는)는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원래 운장대(雲藏臺: 구름에 문혀 있는)라고 불렸으나 조선시대 세조가 북한에서 목욕을 하고 이곳 석천의 감로수를 마시며 치명할 때 문무시종과 더불어 날마다 대상에서 시를 읊었다 하여 문장대라 부르게 되었다는 해발 1,054m여 경상북도 상주군 문장대에 서서 삼라만상을 내려다본다. 동서남북이 초록빛으로 시방세계가 텅빈 내 가슴을 채워 주는 느낌이다. 문장대는 남쪽에서는 천왕봉과 선녀봉, 칠형제 바위들이 군상을 이루고 북동으로는 관음봉이 우뚝 솟아 단아한 자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에 앉으니 맑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신선이 된 듯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올라 보고 싶은 곳에 그리고 정상에서 만났으니 정상주를 한잔씩 먹고 내려왔다. 문장대에 금샘호(황금색 물이 항상 가득차 있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가 있어 항상 물이 고여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하행길을 선녀봉쪽으로 택한다. 낮에는 등산객 밤에는 동물들이 내왕하는 골짜기 뻗은 오솔길이 되어있다. 길가는



속리산 법주사 앞 기념 촬영 모습



백 성장과 스마트 그리드 강연 모습

떡갈 참나무 잎들이 평풍처럼 둘러싸여 그 사이에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며 송송 맺힌 땀방울에는 시원한 맛이 감돌아 한 첩의 보약보다도 달콤하였다. 줄지어 내려오다 발견한 바위의 군상들을 쳐다보면서 갖가지 이름을 붙여 보았다. 이러한 군상들의 생김새를 보면서 한국의 산맥들이 중국의 산맥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이나 한 듯, 기쁨의 탄성을 자아낸다. 하산중 산자락 계곡에 명경지수 같은 호수가 보였다. 일행들은 입욕을 하자고 제언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 목물만 축이고 내려왔다.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보다도 정상을 향해가는 고난과 고행 그리고 괴로움은 심신을 괴롭히지만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걸음 내딛는 그 기쁨은 정상을 정복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임을 깨닫게 해주는 극기훈련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6월의 태양이 내리쬐는 속리산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관광버스에 올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성심 성의껏 준비하신 협회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